

◆며느리권씨 일전 23-2

문충공 선원 김상용의 貞夫人 권씨 (추밀공파 23세, 권개(權愷)의 딸)

효종의 인선왕후의 외조모, 현종의 외증조모

김상용의 가계

조선 말 망국의 세도정치(적화파) 김상현 후손, 김준수 노론파의 장본인 소위 장동 김문은 사립(士林)을 대표하는 명문가로 성장하였지만, 김상용, 김상현 이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훈구파(勳舊派)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상현의 오대조 김계관(金桂閑)은 문종(文宗) 대 이조판서를 역임한 권맹(權孟孫, 예천 권씨)의 사위가 되어 서울 장의동(현재 종로구 청운동)에 터를 잡았다. 그는 세조(世祖, 세조찬탈공신)의 즉위를 도와 공신에 녹훈되었으며 한성관판을 역임하여, 명문가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닦았다.

계열은 서인이고 후에 노론으로 되면서, 남인 계열인 안동권씨와 같아 있어서 김상용 사당(현 안동성소병원 뒤) 건립시 권씨들이 기와장을 걱정하는 소동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좌의정 청음 김상현, 장단부사 김상관, 경주부윤 청백리 김상복(金尚宓)의 형이며, 효종비 인선왕후의 외조부이다. 광해군의 비 문성군부인의 이종 사촌로, 광해군과 가까운 외척이었지만 반정 후 불이익은 없었다고 한다.

동생 김상현은 백부 김대효(과거 낙방, 음서로 관직, 현감 근무증 사망, 추증 영의정)의 양자로 가고 자신도 아들이 없어서 둘째형 김상관(음서로 군수)의 아들 김광찬(군수, 서예가)을 양자로 들인다. 김광찬의 부인이 김제남(인목대비 부친)의 손녀여서 불이익을 받았다.

김광찬의 아들 두명이 영의정(김수항, 김수홍)이고 김수항의 아들 6명은 모두 인재로 장동육장(壯洞六昌)이라 하여 정계(김창집), 사상계(김창협), 예술계(김창흡) 등 이름을 날렸다. 이중 김창집(영의정, 노론4거두)의 아들 김제겸(金濟謙, 소론의 신임 사화로 사망), 그 아들 김달행(金達行), 그아들 김이중(金履中), 그 아들 김준(金祖淳)이 나온다.

그는 정조의 대신으로 어린 왕 순조의 장인으로 세도(世道, 광대하게 정치를 잘하는 것)를 명받았으나, 그 뒤 후대에 세도(勢道)로 변질되어 망국으로 가니, 김조순은 대단했으나 그 후손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 그래서 정조의 그 화려한 치세도 빛을 다졌다.

물론 어기지로 된 왕 고종과 민비 외척들의 무지막지한 전횡보다는 그나마 자체적으로 걸려주는 기능이 있어서 좀 나았다고 보지만, 송시열과 그 노론의 그 수구적 유산은 아직도 우리의 곁을 맴돌고 있다. 이율곡, 파평, 대전(太田), 소론, 윤선기, 권시 등 그 또한 어두운 그림자의 하나로 역사는 항상 이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여간 조선 후



우의정, 아들 광령은 도정(第3품 당상관), 광현(참판, 차관급), 광현(참판, 좌전후 분사), 사위 남호익(사위, 정5품), 정유(영의정), 이이상(군수)등의 자식을 두었다. 장유의 딸은 효종의 왕비 외손녀 인선왕후이다.

사진 (주)안동권씨종보사

기 최고의 명문임은 틀림없다.

정부인 권씨의 가계

정부인 권씨는 추밀공파 23세로 부친은 권개(權愷, 22)인데 중종25년(1530년) 출생하여 의금부도사, 장악원직장, 호조정랑(6품)까지 올랐다. 모친은 전주이씨로 이조참판 이원강의 딸이다. 무자삼녀로 포은 정동주의 7세손 셋째딸 사위의 문중에서 봉향하고 있다.

권개의 동생이 권율장군이고 그 부친은 권철이다. 이런 정도는 다 아는 것이니 이 집안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겠다.

양촌 권근(16)의 가계로 권제(17, 문정공), 권휘(18, 세조공신), 권교(19), 권적(20, 숭정대부 추증) 그리고 권철(21, 영의정)인 것이다.

김상용, 권씨 직계자손

김상용의 후손들 또한 그의 충절을 계승하며 살았고, 그가 남긴 명예와 가족의 명성은 계속해서 후세에 영향을 미쳤다. 김상용의 손자 김수전이 13살로 할아버지와 함께 순절하니 조선 왕조의 충신으로



들이 없는 마음을 가질 때, 건강해질 것이고, 매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연히 풀릴 것이며, 온전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귀일(歸一)

옛말에 이르기를 귀일(歸一)이니 회삼귀일(回三歸一)이나 하는 말들이 있다. 세상만사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로 돌아간다는 말이리라.

만법(萬法)도 천지인에서, 삼재팔난(三災八難)도 하나에서 왔으니 종국에는 하나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죽은 이를 가르켜 우리는 돌아가셨다 하고, 인생은 입장춘몽, 즉 잠에서 깨어보니 허무한 일이라는 뜻이며, 인생은 나그네라는 말은 긴 여행 끝에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

예수님이나 석가세존도 설(說)을 하실 때에 많은 비유를 들었다. 특히 예수님은 다양한 사물을 비유로 들어서 무지한 대중에게 깨우침을 주셨다. 성서에는 포도나무, 양, 비둘기, 겨자씨, 밭, 흙은 문, 집, 반석, 우물… 등등. 이 비유들 하나 하나가 어떤 사실(진리)를 쉽게 이해시키시려고 한 것이겠지만, 비유가 아니고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비유를 다른 말로 우의(寓意), 우화(寓話)라 한다. 여기서 우(寓)자는 머무른다는 듯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집을 떠나 여관이나, 객지의 숙소에 잠시 머무름을 뜻하는 말이다. 즉, 비유(우의, 우화)는 이처럼 돌아갈 집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다.

여고나의 침대나 장식이 너무나 좋다고 이를 애지중지(愛之重之)하면서 그곳에서 머물러 살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나의 여관으로 보신 듯하다. 모든 비유는 여관의 장식품을 통하여 돌아갈 집을 설명했던 것이다.

비유란 말의 영어 표현은 Metaphor, meta(over) + phora(carrying)인데 즉, '위로 옮겨 보내다'는 뜻으로 의미의 전이와 상승을 말한다.

동서고금의 성현들의 생각은 인간의 정신이나 마음을 하늘로 향하게 한다.

성인(聖人)들은 아마도 그 귀를 하늘에 드리우고 하늘의 소리만 들으셨음이 아닐는지…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본성(本性)

트러블, 갈등, 상처, 고통, 불행…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대개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 '누구 때문이', '무엇 때문이', 그러나 이것은 답이 아니다. 너무나 틀린 답이다.

'누구 때문에'를 해소하기 위해서 터무니 없는 고생을 하고, '누구 때문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갈등과 상처를 입혔던가!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의 본성(본질)을 모른 체로 살아간다.

생명의 본질을 모른 체로 집착이 자신의 삶을 해쳐나가는 에너지의 원천으로 작용해 왔다. 한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의 내면의 집착이 곁으로 들어난 모습이다. 집착은 오랜 경험에 의한 생각(마음, 구별, 판단)의 결정(結晶)으로, 앞서 말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다.

사람의 성격이란 타고난 환경, 성장과정, 사회적 고정관념, 가치관등에 영향을 받으며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보존능에 의존한다. 이 생명의 본성을 모르기로 삶의 근원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대상을 통해 자기존재를 확인하려고 한다.

자기존재를 들어내는 방법으로 대상에 접해 끊임없이 감정(五慾七情)을 일으켜 대상에 작용하고, 자신이 또 어떻게 이에 대하여 반작용할지를 생각한다.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갈등이 항상 존재한다.

결국 인생의 모든 문제는 생명 본성에 대한 무지(無智)때문이다.

우주는 커다란 생명체, 그 작용은 위대한 생명력(생명력)이다. 모래(지구)위에 붙어 있는 인간들! 그 개체들의 의미나 존재는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 자체는 우주의 하나님의 생명세포에 불과한 것이다. 개체로서는 존재의 의미나 목적은 없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인생고(人生苦)는 우주에서 분리된 개체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이제 한 번 생각해 보자!

나라는 개체는 생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숨쉬는 일, 맥박을 뛰어 하는 일, 잠을 안 잘 수 있는지,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입안에 음식물을 넣는 것, 아니 그 조차도 나의 자율신경계에 의하여 지배됨을 알아야 한다. 머리카락을 1cm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는가? 손발톱은 자라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모두 우주의 생명의 본성(生)가 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실인가! 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둘이 아닌 하나(不二)이다. 인류는 이처럼 불이(不二)를 알아 가는 과정에 있다.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그 틀을 벗어버리라! 나는 나 흘로 있는 개체가 아니라, 이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생명을 알자! 생명의 본질인 우주를 향해 내가 들어갈 문을 열어젖혀보자! 우주의 위대한 생명력을 따라 구름처럼 흘러가보자!

정처없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 마치 나뭇잎에서 맷힌 물방울 하나가 심신유곡을 거쳐, 시냇물이 되고, 그 시냇물이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마침내 대양에 이르듯이, 우리의 본성도 대우주의 생명 바다에 이르게 될 것이다.

가능한 한,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서 30분 정도만 가장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로 눈을 감고 앉아 있어 보라. 곧 나라는 틀이 사라지고 불, 전체의식(우주의식)에 잠겨드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본성에 대한 깨달음은 좀 늦을지도라도, 몸의 질병은 모두 물려갈 것이다.

이 마음의 틀을 깨쳐버리는 것이 타고난 사주도 질병도 물리칠 수 있는 우주의 치유법이다.

기고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와 납부 및 수정신고 등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면, 결산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납부 등

1. 신고기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2. 결산확정일

상법 8477에 규정하는 서류를 정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승인한 날(정기주주총회 일)을 말함

3. 신고기한의 연장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 담당부서의 책임자는 천재·지변의 발생시 그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사진, 동영상, 신문기사 등)를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가. 신고기한 연장의 사유

① 납세자가 화재·전화·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②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③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함)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⑤ 위의 ①, ②, 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나. 기한연장의 신청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한연장(승인)신청서에 의하여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① 기한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② 연장을 받고자 하는 기한

③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④ 기타 필요한 사항

4. 제출서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에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는 필수 서류로서 한 가지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본다.

특히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할 서류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인데 업무의 자연 등 사유로 작성이 안 된 경우에는 필수서류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만 기한내에 제출하고, 부속명세서는 주후에 제출하는 것이 무신고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다. 법인세의 물납

①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토지개발채권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음

② 위 ①의 토지개발채권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부동산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것에 한함

특히 과세표준신고 시 제출할 서류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인데 업무의 자연 등 사유로 작성이 안 된 경우에는 필수서류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만 기한내에 제출하고, 부속명세서는 주후에 제출하는 것이 무신고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가내에 유아의 소란이 있어야 함에도 적막하면 멸문지환(滅門之患)이 초래되는 것인데 천륜을 막고하고 있으니 한심하구나!

나는 사주팔자가 불길하고 기구하여 80여 평 생생 태인들이 차량(며느리, 손자 입학, 졸업, 출세) 하는 현량(賢良)한 귀염이며 늙으니와 손자를 볼 수가 없어 한탄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됐구나!

원한이 있으면 운명 시에 눈을 감지 못하고, 저승(황천)에 가게 되니, 유통하기 한이 없다. 간절히 기대할 뿐이고, 며느리와 손자 보고 싶은 심정